



## 메르스 철통방어로 입증된 고대안산병원, 환자의 안전과 청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고대 안산병원, 환자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다!

고대 안산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였던 각종 교육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국민안심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고대 안산병원이 실시하였던 각종 방역체계는 임시방편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 발빠른 대처와 철저히 준비한 노력의 결과로 빛을 발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감염관리의 날 행사를 통해 환자의 감염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 온 교육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환자안전의 날 행사는 외부초청강연과 안전사고사례를 분석, 토론함으로써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고대 안산병원은 지역의료체계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병원 간 핫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병원에서 환자를 의뢰할 때 지역병원장과 고대 안산병원 의료진이 직접 연락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의 건강과 기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 및 각종 문제를 미연에 차단하여 보다 빠르고 안전한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다양한 교육과 시스템개선을 통한 접근 뿐 아니라 병원시설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하여 뛰어난 인프라구축을 통해 서울소재 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논란이 있었던 음압병실에 대해 고대 안산병원은 이미 2개의 음압병실과 1개의 응급실음압설비를 운영하고 있어 전염병환자에 대한 격리시설 및 치료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병원 구석구석 AED(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고 전직원들에게 AED의 위치와 CPR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처럼 고대 안산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일념 하에 전직원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으며 안심하고 내원하여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Contents

#### 2P 감염질환의 사전차단 음압격리병실 운영



#### 3P 환자를 위한 병원직원의 노력 직원교육행사 실시



#### 4P 새로운 모습의 안산병원 소아청소년센터 개소



#### 5P 의료진동정 대한비뇨기종학학회 학술대회 우수상



#### 7P 건강정보 현대인의 고민! 탈모



### How to contact 고대안산병원

- 전 화 예 약 - 진료예약센터 : 1577-7516  
예약시간 : 평일 08:00 ~ 18:00, 토요일 08:00 ~ 13:00
- 인터넷예약 - 홈페이지(ansan.kum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예약  
※예약일정이 확정되면 진료일 전날 고객님의 핸드폰으로 SMS문자가 발송됩니다.
- 진료협력센터: 031)412-5103   ● 응급의료센터: 031)412-5381   ● 종합건강진단센터: 031)412-5865





## 감염예방의 필수시설 음압격리병실

메르스사태 이후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의학용어 중 하나는 바로 '음압병실'이라는 단어이다. 음압병실이란 병실 내부의 공기압이 낮아서 내부의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병실을 말한다. 공기는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는데 병실 내부를 낮은 압력으로 유지시키면 병실 내부의 오염된 공기가 다른 병실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음압병실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공기를 매개체로 전염되는 질병을 막기 위해서이다.

메르스의 전염경로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벌어질 무렵 음압병실을 이용한 환자의 격리와 해당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한 병원들은 음압격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특히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시설확충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대안산병원은 2014년부터 음압병실에 대한 설비를 갖추고 전염병환자 치료 및 2차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대안산병원의 음압시설은 입원병실 2곳, 응급실 1곳을 마련하였으며 입원병실은 전염병환자와 격리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 설비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또 다른 환자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외래에서부터 2차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고대안산병원의 감염예방에 대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고대안산병원의 철저한 준비는 금번 전국적인 메르스 발병에도 불구하고 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메르스 확산방지에 큰 기여를 했고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믿음을 심어주었다. 앞으로도 고대안산병원은 철저한 예방과 준비를 통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는 병원이 될 것이다. 





## 감염관리의 날 행사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지난 9월 15일 본관 대강당에서 '제7차 감염관리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차상훈 원장을 비롯하여 이경진 간호실장, 박대원 감염관리실장을 비롯하여 약 20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차상훈 원장은 축사에서 "2001년 감염관리실 개설 이후 감염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이번 메르스 유행 발생 당시에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하였다"며 "의료관련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감염관리실의 노력 뿐 아니라 교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1부에서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의 '신종 감염병 시대-에볼라와 메르스 그 한가운데를 지나다' 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도전! 감염관리 퀴즈왕 선발대회'로 구성됐다. 2부 '퀴즈왕 선발대회'는 OX, 객관식, 단답형 문제로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준비해온 응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안산병원 감염관리의 날 행사는 2008년 제1차 행사를 시작으로 세미나, 손위생포스터, UCC 동영상, 슬로건, 퀴즈왕 선발 등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

## 환자안전의 날 행사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8월 27일 본관 2층 대강당에서 '2015 환자 안전의 날' 행사를 220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적정진료관리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김운영 적정관리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안산병원의 위험관리(최병민 진료부원장), ▶환자안전 UCC동영상 상영(6개 부서), ▶환자안전관련 특강(박문성 아주대병원 진료부원장) 순으로 진행 되었다. 최병민 진료부원장은 "환자 및 보호자의 의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의료분쟁과 분쟁 건수, 환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환자 안전"은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되어 있다"며 "환자안전문화를 구축해 함께 움직여야하며 이로 인해 진정으로 환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자"라고 말했다.

김운영 적정진료관리부장은 "언제나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모두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환자안전이라는 나무를 자라게 하고 꽃피우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말했다. 🏆



## 고대안산병원 소아청소년센터 개소

### 지역아동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약속

고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이 9월 2일에 외래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본관 1층에 소아청소년센터를 확장하여 오픈 행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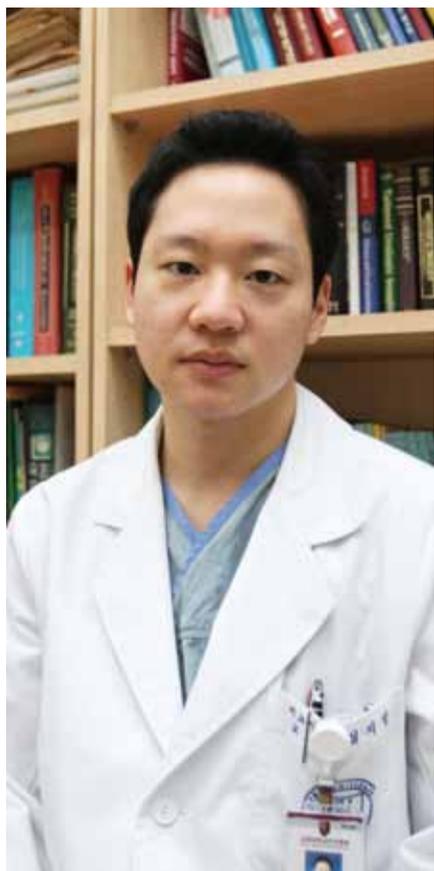
새로 단장한 오픈식에서는 차상훈 병원장을 비롯하여 최병민 진료부원장, 김윤경 소아청소년과 과장 및 다수의 의료진들과 각 행정부서장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차상훈 원장은 오픈식에서 "이번 소아청소년센터 개소로 소아환자와 보호자가 안락한 환경속에서 치료를 가능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말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센터는 신생아분과, 소아 심장분과, 소아 감염분과, 소아 신경발달 분과, 소아 신장분과, 소아 호흡기알레르기분과, 소아 내분비성장분과, 소아 소아기영양분과 등 세부 분과로 나누어 진료를 하고 있으며 연구역량에 기반한 진료 향상을 위해 실험실 운영을 통하여 기초 의학과 접목,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료기술과 의료 정보의 전산화 도입으로 지역사회 소아청소년 의원과 협진 체계를 구축하여 안산 지역의 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소아청소년센터는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를 통해 지역 사회와 국가에 헌신하는 병원이 되길 위해 힘 쓸 것이다. 





## 심지성, 박재영교수팀 대한비뇨기종양학회 학술대회 우수상 수상

고대 안산병원 비뇨기과 심지성 · 박재영 교수팀[사진 왼쪽부터]이 최근 개최된 '2015년 제28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 학술대회' 에서 공모논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Characteristic difference of prostate cancer between Korean patients, European Randomized Study of Screening for Prostate Cancer, Rotterdam group and Dutch clinical cohort' 란 주제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박재영 · 심지성 교수팀은 유럽인에게서 발병하는 전립선암과 한국인에게서 발병하는 전립선암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재영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에게 발생하는 전립선 암에 대한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

### 비뇨기과 심지성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소아비뇨기, 남성학, 전립선, 결석, 배뇨장애

진료시간: 오후(수) 오전(금)

### 비뇨기과 박재영 교수

대한비뇨기과학회 수련위원회 위원

대한비뇨기종양학회 기획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비뇨기종양, 복강경(양성 및 악성질환), 남성학, 전립선, 결석, 배뇨장애

진료시간: 종일(화) 오후(목)



## 전립선암, 치료와 극복

전립선암은 2012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고령화와 식생활의 변화로 전립선암은 2012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 4위를 기록했다. 5위가 비교적 잘 알려진 간암인 점으로 미뤄 볼 때 전립선암은 더 이상 외국의 병이 아니다. 전립선암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남성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전립선암 검진=전립선암 검진은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항문으로 손을 넣어 전립선을 만져보는 촉진은 혈액검사(PSA) 수치가 높거나 가족력, 나이 등을 고려해 고위험군일 때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조직검사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PSA 검사는 전립선의 기능을 총체적으로 알아보는 검사법이다. 고대안산병원 비뇨기과 박재영 교수는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을 보고 난 후 개운하지 않은 등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를 받게 된다. 단순히 PSA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조직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고 설명했다.

PSA 수치가 높더라도 실제 암일 확률은 절반 이하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과거에는 PSA 검사에 의존해 조직검사가 이뤄졌지만 실제로 암을 발견할 확률이 절반을 넘지 않고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수검자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높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박 교수는 국내 전립선암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조직검사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한국인 전립선암 위험도 계산기를 개발했다.

박 교수는 "환자의 항문으로 손을 넣어 전립선의 조직을 채취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검자의 고통이 수반된다. 또한 대장과 가깝기 때문에 대장균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있어 검진은 고위험군을 가려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진료에 사용하는 전립선암 위험도 계산기는 다섯 가지 위험요인을 따져 조직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한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전립선암의 악성도에 관계없이 수술적 치료를 권하기도 하지만, 고대안산병원에서는 환자의 기대여명과 전신상태를 고려하는 최신 진료 지침에 근거해 최선의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고 덧붙여 말했다. 🏆



## 오송-세종-안산 잇는 '오세안 보건의료기술 광역클러스터' 구축 박차

고대 안산병원이 세종캠퍼스 과기대, 약대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자들과 함께 모여 '오송-세종-안산' 을 아우르는 보건의료기술(HT) 광역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고대 안산병원(원장·차상훈)은 7월 16일(목) 고대 세종캠퍼스 과기대, 약대 등의 연구자와 함께 고대 세종캠퍼스(부총장·조홍연)에서 '오송-세종-안산 중개연구 기반구축 심포지움' 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향후 안산-오송-세종을 잇는 가치 '오세안 HT 광역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나갔다.

조홍연 세종부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고대 세종캠퍼스에 방문해주신 고대 안산병원과 오송첨단의료산업재단 연구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며 "고대 세종캠퍼스는 과기대, 약대를 기반으로 한 미생물학, 광학 등의 기초연구분야 인프라를 통해 두 기관과 협력하여 보건의료기술 중개연구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이승훈 연구부원장은 "고대 안산병원은 안산사이언스밸리(ASV)의 정부출연연구소 및 보건의료기술 관련기업 등 지역 산·학·연 기관과 융 복합 연구를 주도하는 연구혁신병원이다" 며 "이번 심포지움을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고대 안산병원의 임상연구 역량과 고대 세종캠퍼스의 기초연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첨단 인프라가 결합한 오송-세종-안산을 잇는 보건의료기술 광역 클러스터 구축 및 시너지 효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고대 안산병원은 지역유일의 연구혁신 대학병원으로서 경기테크노파크, 전기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등 안산사이언스밸리와 연계하는 등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네트워크 및 연구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중국 영성시중의원 방문단 고대안산병원 방문

고대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지난 9월 15일, 6명으로 구성된 중국 영성시중의원 방문단의 내방을 받았다.

이번 만남은 안산병원의 선진화된 시스템 전반을 확인하고 벤치마킹 하기위한 방문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박종태 진료협력센터장은 "이번 방문으로 병원간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며 "고대안산병원과 영성시중의원은 30년의 역사 뿐 아니라 병원의 규모 역시 비슷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상호 발전관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제리영 영성시중의원장은 "고대안산병원의 최첨단 의료인프라를 직접 보게되니 놀라웠다" 며 "영성시중의원은 1,0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으로 한의학 뿐 아니라 내과, 외과 진료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어 양 병원의 교류를 통해 보다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고대안산병원과 영성시중의원은 상호 연계체계구축으로 업무협력논의 및 관계강화를 통하여 병원발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고대 안산병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고대 안산병원(원장·차상훈)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곽재원)이 7월 24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노카페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건의료기술(HT) R&D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차상훈 원장, 이승훈 연구부원장, 소화기내과 임형준 교수, 이비인후과 최준 교수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곽재원 원장, 오택영 경영관리본부장, 홍성수 천연물 연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협약식 이후 바이오센터 팜투어를 통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천연물질 및 신약후보물질을 분석하는 첨단 장비 및 시스템을 둘러봤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천연물 기반 질환별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을 비롯해 과학기술 및 보건의료 분야 국가사업 공동 발굴, 유치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보유시설, 인적자원, 협력 네트워크 등을 공동 활용하여 양 기관의 설립목적, 역할, 기능에 부합한 공동협력사업을 발굴 및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희망샘 기금 전달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과 한국미디어네트워크는 지난 8월 12일 오전 11시 안산병원 본관 13층 대회의실에서 '희망샘기금·2000만원' 에 대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차상훈병원장, 송효성 경영관리실장, 권병창 원무팀장, 정춘희 간호팀장과 한국미디어네트워크 조상현 대표이사과 지원을 받는 말라카이와 그의 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에 지원을 받은 말라카이는 본원에서 2015년 2월 16일에 25주 3일 550g으로 출생하여 7월 15일 3.8kg으로 퇴원하였다. 현재는 특이 사항은 없으며 외래 경과관찰 중이다.

전달식에서 말라카이의 아버지는 감사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 고대병원과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전달하였다.

한국미디어네트워크 조상현 대표이사는 "고려대의료원과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모금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쁘다. 더욱 활발하게 홍보하여, 더 많은 환아를 도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강조했다.

차상훈 병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모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타국땅에서 치료를 계속해 나가자면 힘든 일이 많겠지만, 말라카이가 잘 이겨내 건강한 모습을 자라길 바란다" 고 말했다

희망샘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와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함께 하는 사랑의 캠페인으로 인터넷 포털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모금을 통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과 희망을 주고 있다.



## 현대인의 고민! 탈모

탈모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할 정도로 탈모는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다. 그러나 친숙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모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머리를 자주 감으면 머리카락이 잘 빠진다.', '빗으로 두피를 자극하면 탈모를 줄일 수 있다.' 등을 비롯하여 '대머리는 정력이 좋다.' 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탈모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이 통용되고 있다. 탈모가 현대인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만큼, 탈모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 ◆ 자고 일어나서나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100개 넘게 빠진다면 탈모를 의심해봐야

탈모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이거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피부에서는 오래된 털이 빠지고 새로운 털이 자라는 과정이 매일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하루에 약 50~70개까지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서나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가 100개가 넘는 경우, 두피가 가렵거나 이전보다 모발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는 경우, 이마 헤어라인이 점차 올라간다면 지극히 가벼운 부위가 넓어지면 탈모를 의심해 봐야 한다.

### ◆ 증상에 따라 원인 다양... 남성호르몬과 스트레스가 주 원인

탈모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탈모의 유형인 남성형, 여성형, 원형, 휴지기성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원인과 증상을 나눠볼 수 있다. 남성형 탈모의 발생에는 유전적 원인과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androgen)이 중요한 인자로 생각되고 있으며, 이마와 머리털의 경계선이 점차적으로 뒤로 이동하면서 이마가 M자 모양으로 넓어지고 정수리 부위에도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다. 여성형 탈모 역시 안드로겐이 원인 중 하나이지만, 남성형 탈모에 비해 이마 위의 모발선이 유지되면서 두피 전체에 걸쳐 모발이 가늘어지며 가려움 부위가 넓어지는 증상을 보인다. 즉 이마는 넓어지지 않지만 속이 비어보이게 된다. 원형 탈모는 동그랗게 머리가 빠지는 '탈모반'이 한군데 또는 여러 군데 발생하고,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스트레스나 자가면역반응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 빠진다' 라고 하는 것은 휴지기성 탈모로 볼 수 있는데, 스트레스나 영양 결핍, 출산, 발열 등 심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겪으면 그 영향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성장기-퇴행기-휴지기의 순환과정을 거치는 모발의 90%정도가 성장기에 있는데,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후, 2-4개월 이후에 갑자기 성장기 털들이 휴지기로 많이 진행되면서 머리가 빠지게 된다.

### ◆ 검증되지 않은 방법보다는 전문의와 상담 통해 증상에 맞는 치료법 선택해야

탈모의 치료 역시 종류에 따라 그 방법이 다양하다. 남성형 탈모는 남성호르몬이 원인에 관여하기 때문에 남성호르몬의 하나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약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기능 이상반응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2% 미만이고 약물을 끊으면 정상화된다. 다만 임산부에게는 태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탈모 증상에 따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미하다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모발이식법과 같은 치료도 가능하다. 다만 모발 이식은 머리가 빠지는 것이 어느 정도 진행을 멈춘 후 하는 것이 좋다. 원형 탈모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주사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고, 빠진 부위가 한군데일 경우는 잘 회복되는 편이지만 여러 군데 생기면 합쳐지면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러 군데 생기거나 반복될 경우에는 갑상선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에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면역요법, 광선치료요법, 냉동치료 등의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휴지기 탈모는 원인이 되는 내분비 질환, 영양 결핍, 출산 등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치료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탈모에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과도한 염색, 파마, 수면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섭취와 스트레스 해소,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이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 갑상선 질환이나 빈혈과 같은 질환이 동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진이 필요하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피부과 유화정 교수는 "탈모에는 이런 치료가 좋다'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탈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탈모 종류에 맞는 검증된 치료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피부과 유화정 교수

대한 피부과 의사회 정회원

ISDS(International society for dermatologic surgery)

학회 준비위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레이저, 피부미용, 필러, 보톡스

진료시간: 오전(월) 오후(화) 종일(수) 오전(목)

# 최첨단 의료기술인 da Vinci® 로봇수술이 고대안산병원에서 시행됩니다

